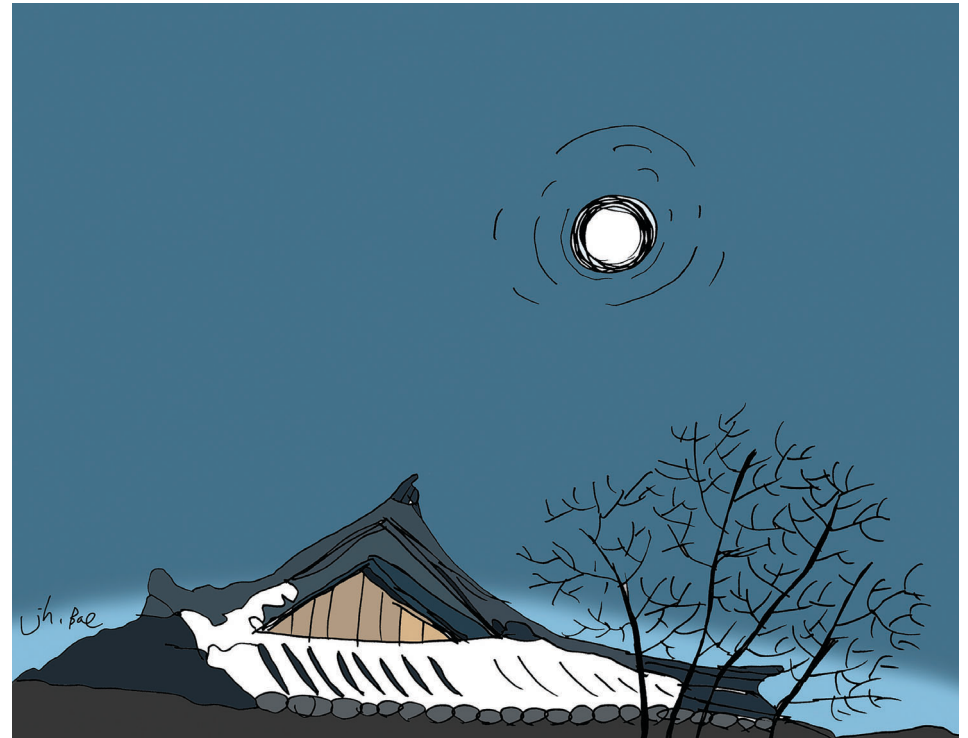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카툰

내가 하고 싶은 것 남에게 베풀라

새벽, 해우소를 다녀오는 길에 달을 만났다.
 ‘제가 여기 계신 달님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니 달은 푸른 웃음을 짓는다.
 다시 방에 들어가 남은 잠을 자기엔 아쉬운 새벽이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대웅전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에 나방처럼 다가섰다. 법당 안에는 새벽 예불을 준비하느라 불을 밝히는 노보살이 혼자 합장을 하고 있었다. 들어설까 잠시 주춤하다가 가만히 돌아섰다.
 내가 오롯이 홀로 있고 싶은 순간의 마음이 날 붙들었나보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마흔아홉 번째 날 ㉔

난 할머니 친구 꽃님이야

할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일곱 날이 지났어. 할머니를 차가운 땅속에 묻고 돌아와서 엄마는 며칠 동안 앓아누웠어. 아빠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나를 보살폈지.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할머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을 거야. 집안에는 물에 젖은 숨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어디를 가도 무겁고 축축해.
 큰고모 스님(어른들이 이제 큰고모에게 고모라고 하면 안 된다. 행화 스님이라고 해야 한다.)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읊고 있어. 목탁 소리에 맞춰 작은고모는 아이고 아이고 우는 소리를 내. 작은고모는 절을 올리다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음을 터트렸어.
 “아이고, 엄마.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엄마 없이 못 살아!”
 고모부는 고모 등을 톡톡톡 두드리고, 사촌 언니 오빠도 자기 엄마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있어. 나는 그 꼴이 보기 싫어 할머니 방으로 왔어.
 작은고모는 항상 말만 늘어놓지. 효도를 말로 할 것 같으면 작은고모가 세계 1등이라고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머리칼을 잘랐을 때, 작은고모는 엄마를 잡아먹을 듯이 다그쳤어. 노인네 머리 하나 감기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느냐고, 네 몸 하나 편하자고 그 고운 머리칼을 이리 싹둑 잘랐느냐고. 할머니가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런 말은 못 했을 텐데.
 “그럼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가서 머리도 감겨 드리고 곱게 손질도 해드리세요.”

엄마가 차갑게 말했지. 작은고모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핑지 빠지게 도망쳤어. 엄마랑 나랑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어. 기억나, 할머니?
 내가 머리를 자르던 날 할머니도 머리를 잘랐어. 할머니가 아프기 전에는 할머니가 늘 내 머리를 묶어주고 땅아 주었는데, 엄마는 할머니처럼 예쁘게 못 묶어. 늘 같은 모양으로 고무줄로 잘끈 묶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칼이 주르르 흘러내리지. 귀밑에서 찡랑거리는 내 머리를 보고 할머니가 말했어.
 “나도, 나도, 나도 꽃님이처럼 자를 테야.”
 “할머니, 다희. 나 다희잖아. 꽃님이 아니고.”
 “몰라. 몰라. 나도 꽃님이 저년처럼 예쁘게 잘라 줘.”
 할머니는 기억이 거꾸로 가는 병에 걸렸다고 아빠가 말했어. 할머니에게 나는 손녀 다희가 아니라 어릴 적 친구 꽃님이라고, 가까운 날의 기억은 점점 지워지고, 오래전 기억만 생생하게 남았다고.
 할머니 방은 무척 쓸쓸해. 할머니 옷이랑 이불이랑 모두 태워버렸거든. 남은 건 할머니랑 같이 베넌 커다란 베개뿐이야. 이젠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울며 매달렸어. 참 이상해. 태워버린 건 옷이랑 이불뿐인데, 옷장도 텔레비전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할머니가 없는 방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아.
 커다란 옷장 안에는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사각사각 소리가 나던 모시 적삼이랑 소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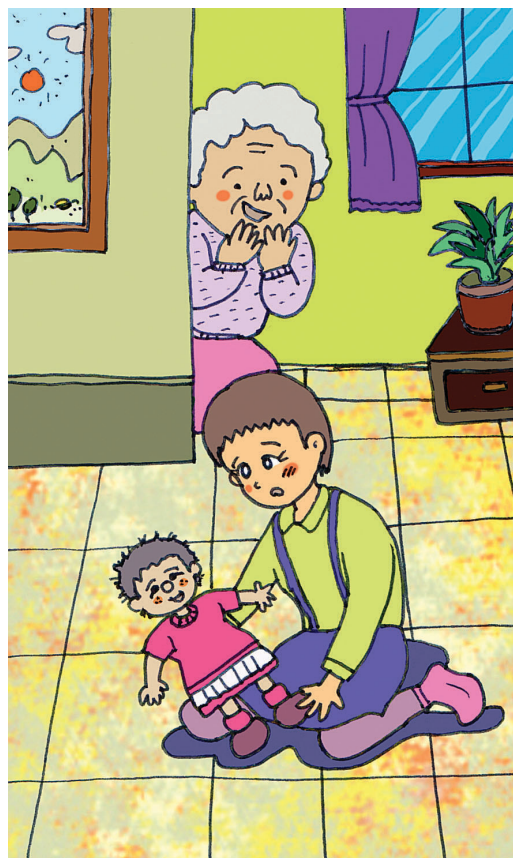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꽃으로 수놓은 누빔 두루마기도 이제 없어. 할머니가 수놓은 그 꽃들은 정말 예뻐했는데.
 베개를 꺼내다가 깜짝 놀랐어. 베개 아래에 훑힌 것이 놓여 있었어. 한참을 보고서야 그게 월로우인지 알아차렸지. 월로우를 안고 나는 소리를 질렀어.
 “할머니이이이이!”
 어른들이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어. 나는 울음을 터트렸어.
 “할머니가 월로우 머리를 잘라 버렸어!”
 나는 어른들 뒤에 할머니가 움츠리고 숨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흘겼어.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허리까지 내려오던 월로우의 아름다운 머리칼은 싹둑 잘려버렸어. 그렇게 윤기 나고 부드러운 머리칼인데, 지금은 온통 하늘을 향해 뻗어 있어.
 언제부턴가 월로우가 보이지 않았어. 아마 할머니랑 내가 머리를 자른 날부터였을 거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월로우를 내어놓으라고 할머니를 다그치면 할머니는
 “꽃분이는 내 거야. 올 아버지가 장에 갔다 사다 주신 거야.”
 그러다 그만 울어버리곤 했지. 다른 장난감을 처럼 어디선가 불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잘려버리다니.
 “애, 그깟 인형 하나 가지고 소란이니. 내가 하나 새로 사 줄게.”
 작은고모는 어쩔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저렇게 알뜰게 할까. 언젠가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지. 작은고모를 가졌을 때 할아버지가 토끼 고기를 구해다 줬는데, 그게 토끼가 아니라 여우 고기였던 모양이라고.
 월로우는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인형이 아니야. 월로우는 내 친구야. 내가 아주 아끼었을 때 아빠가 사주셨어. 그때부터 나는 월로우랑 같이 잠자고, 같이 놀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어. 할

머니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월로우는 원래 뚱뚱하고 좀 못생겼지.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입술은 통통해, 둥글둥글한 코 위에는 주근깨도 나 있고, 유일하게 예쁜 곳이라고는 머리밖에 없었는데, 이제 월로우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못난이 인형이 돼 버렸어.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할머니.
 엄마가 손수건을 곱게 접어서 월로우 머리 위에 두건처럼 씌워 주었어. 싹싹한 인디언 소녀 같은 월로우는 이제 가여운 성냥팔이 소녀처럼 보여.
 “이 인형은 너를 꼭 닮았구나. 네 아버지는 어디서 이런 예쁜 것들을 사다 주시니?”
 어린아이가 된 할머니는 늘 내 장난감을 부러워했어. 나는 할머니와 장난감을 나눠 쓰곤 했지. 할머니가 나를 자꾸 꽃님이라고 불렀고, 난 여전히 할머니가 좋았어. 어쩌면 아이가 된 할머니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소꿉놀이를 해도, 훌라후프를 돌려도, 할머니랑 같이하면 뭐든 신이 나고 재미 있었으니까. 막대 사탕을 먹다가 서로 바귀 먹을 수도 있었지.
 할머니는 꽃을 좋아했어. 옷 소매에 꽃으로 수를 놓고,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내 머리에 씌워주기도 했어. 마당에는 채송화, 해바라기, 분꽃 같은 꽃들이 계절마다 피었어.
 “할머니는 왜 그렇게 꽃을 좋아해?”
 그러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지.
 “예쁘잖나. 이 세상에 꽃보다 예쁜 것은 꽃님이 나밖에 없단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엄마는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 차가운 땅속에 할머니를 묻고 왔는데, 나는 자꾸 어딘가에 할머니가 살아 있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등 뒤에서 나와 월로우를 빼앗아 갈 것 같아. 이젠 꽃분이라고, 월로우가 아니라 꽃분이라고, 아버지가 장에 갔다 사다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계속>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수행 화두집(平溫) 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 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 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 論爭, 鬪爭, 戰爭, 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國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터-보림>을 건립 추진중 이다.

우리는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문의 1899-9532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는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